



조이삭 탐닉하는 참새떼 초가을 날씨를 보인 15일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한 농경지에서 이렇게 익은 조이삭에 참새들이 찾아와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다. 강희만기자

## 현 공항 확충 검증 '끝장 토론' 열린다

제주도-도의회-국토부 합의 내달 중 개최 갈등해소 주목 2차에 추가로 열릴수도 "토론회 후 도민의견 수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현 제주국제공항 활용 가능성을 두고 끝장 토론이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 가능성 검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 따르면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와 만나 오는 10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공동 주최로 열린 네 차례의 토론회에 이은 후속 토론회 성격으로,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의 면담에서 제시한 '원 포인트 검증'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토론 의제는 제주국제공항 확충 방안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이 제주국제공항 확충 방안으로 권고한 19개 조건 가운데 4개 조건(항공기 분리 간격 축소·독립 평행항로 신설·교차

활주로 운영·주기장 대폭 증설)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해당 4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국토부, 제주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내달 중 2차례 개최 이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차·4차까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세 기관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 2차례 토론회 개최 플러스 알파형식으로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와 도의회 특위, 국토부 등 세 기관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 내달 중 토론회 2차

레 개최 후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정확한 일정 등은 이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토론회 이후 제주도와 협의해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인 현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한 끝장 토론으로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토론회 이후 특위와 함께 제주도는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 추석 눈앞인데... 체불임금 어찌나

코로나19 등 경영악화 원인 청산대상 5억8000만원 집계 제주도, 추석 전 해소 독려

제주도내 건설, 관광 산업의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악화 및 고용감소 조래 등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제주도는 15일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유관기관·관련 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비롯해 추석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가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체

불임금은 114억5000만원 중 69억7000만원(60.84%)은 해결됐지만, 사법처리 중인 39억원(34.1%)을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5억8000만원(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급금·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살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경기침체 여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반타작'

2000년 이후 7곳 지정 불구 3개소는 미운영·공사 중지

제주지역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이하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국내·외 경제 침체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타작'하는 형국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내에서 운영하거나 조성 중인 휴양

단지는 7곳(운영 1, 미운영 2, 공사 중 2, 공사중지 1, 신규 지정 1)이다. 전체 면적은 73만918㎡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261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감팔랜드(감팔박물관)만 정상적으

로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가 527억원을 투입해 2000년부터 9만8426㎡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등 2005년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2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 색달동 휴양단지가 2013년 조성된 이후 이듬해 개발사업에 들어갔지만 중간에 사업 추진이 더디지며 투자진흥지구 해제 위기에 몰

렸지만 최근 공사를 재개하며 1년간 유예 판정을 받았다. (주)블랙야크가 10만343㎡ 부지에 34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단지 지정을 받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휴양단지가 지난 6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3곳은 경영난 등으로 인해 공사중지는 물론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위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튀는 교육특강 20탄**

**1월 16일**  
 한리일보는 도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론 학부모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여 교육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11 보스턴 마라톤 제패와 더불어 애플랜드를 립키 은메달, 방콕 아시안게임과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 **마라톤이 이봉주** 씨를 초청해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특강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는 물론 학생의 장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제 : 인생은 마라톤이다  
 ▶강사 명 : 이봉주(체육인/방송인)

•일 시 : 2020년 9월 23일(수) 오후 1시  
 •장 소 : 남녕고등학교 체육관 1-3학년 교실(비대면 강의)  
 •대 상 : 남녕고등학교 체육관 전학년  
 •수강료 : 무료  
 •주 최 : 한리일보사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 : ☎ 064)750-2523/2540

## 크조생 온주밀감 "품질 관리" 올해 감귤가격을 좌우합니다!

완숙과 수확

→

철저한 품질관리

→

농가소득 증대

**우리 모두 실천합시다!**

- ☑ 수확 전 부패방지제 살포 철저!
- ☑ 수확은 상처과가 없도록 살살!
- ☑ 선과장 입고전 병해충과 선별하기!

※ 비상품 출하관계자(생산자, 유통관계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농협 · (사)제주감귤연합회